

# 광주 사립유치원 무더기로 검찰 고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회계 비리와 세금 탈루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거나 세부조사를 받게 됐다.

의류구입비와 교재비 등으로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거두고도 현물이나 중고 물품을 지급하는가 기준치 이상으로 원비를 인상하고도 이를 속여 교육청 보조금을 타내는 경우가 적잖았고, 특정 업체와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까지 불거졌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립유치원 30곳에 대해 감사를 진행, 30곳 모두에서 회계 비리 등 모두 218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

교육청은 이 가운데 6곳을 사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하고, 세금 탈루 의혹이 드러난 19곳에 대해서는 검찰 세무서에 세부조사를 의뢰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교육청 감사반원 출입을 저지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한 11곳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광주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운영비리와 관련해 형사고발하고 세부조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리 금액은 20억원에 못달랐다. 보조금을 부당수령해 9억8000만원이 회수 조치됐고 학부모 반환금 1억4000만원에다 연합회 회비 등으로 부당 사용했다가 유치원 교비로 반납하도록 한 금액도 9억9000만원에 이른다.

사기 혐의로 고발된 일부 유치원의 경우 수업에 필요한 옷이나 교재를 사야 한다며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거두고도 실제로는 현물이나 중고 물품을 지급하는가 하면 당초 고지한 금액보다 저렴한 물품을 구입한 혐의다.

창의력사고 수업이나 체험활동 비용을 학부모들로부터 거둬오는데도 정작 해당 수업이나 체험활동을 하지 않은 유치원들도 나란히 검찰에 고발했다.

모 유치원은 지난해 원비를 전년 대비 1.01% 오른 44만9000원으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원아 1인당 프로젝트, 영어, 창의수업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실제 원비인상률은 교육청 기준을 훨씬 웃도는 24.6%에 달했음에도 '학급 운영비가 필요하다'며 월세 1200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유치원은 개당 400원에 우유를 납품받았고 최대 1200원씩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이나 설립자, 또는 설립자가족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유치원 시설 사용료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누락된 사실도 일부 적

## 교육청, 30곳 감사 비리액 20억대...리베이트 의혹 사기 의혹 6곳 고발·탈세 의혹 19곳 세무조사 의뢰

발돼 세부조사 대상에 올랐고, 업무와 의 무자료 거래에 따른 탈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특정 업체와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도 39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교육청도 같은 기간 감사 대상 9개 유치원에서 24건의 비위사실을 적발했다.

조인호 기자



봄향기 '듬뿍'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14일 오후 경남 남해군 서면 인근 들녘에 노란 민들레가 꽃망울을 터뜨려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 광주환경단체 '미세먼지 해결 위한 중·장기 대책 필요'

대중교통 확충·오염자 부담원칙 도입 등 주장  
미세먼지 저감·관리 조례 조속한 제정도 요구

광주환경운동연합이 14일 광주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낸 논평을 통해 "광주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매우 나쁨'을 기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시의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미세먼지 특보 발령 일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 28일부터 지난 7일까지 8일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지속됐다"면서 "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이미 악화된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될 뉘 대응하는 단기대책에만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질적인 배출원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대책은 부족하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정부의 대책을 그대로 위임받아 처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지역 미세먼지 발생원은 자동차 등 도로이동오염원 48.4%, 건설기계·기차 등 비도로이동 오염원 38.9%, 일반가정·발전제 조업 분야 12.8%로 나타난다"면서 "운송수단 배기가스와 비산먼지가 주원인이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 '전국 7대 특·광역시 교통분담률'에 따르면 광주시 대중교통 평균분담률은 28.4%로 최하위이며, 승용차분담률은 59.9%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면서 "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중·장기대책에 실질적인 대중교통 확충과 관련한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대중교통이용지구 지정, 출퇴근 시간 버스전용차로 운영, 자

전거 도로·보행로 확대 등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며 "자동차 통행량 총량관리, 혼잡통행료 등 오염자부담 원칙 도입도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공근로 등 노인 일자리에 대한 근로지침 비산먼지 사업장·도로 위 근무자를 위한 보호 대책도 없다"면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일 수 있는 근거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관리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단체는 "조례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비상저감조치 확대·유선관리구역 지정, 학교·어린이집 휴업, 공사장 조업단축 등이 포함돼야 한다"면서 "시 기후대기과·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상시적으로 협력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대응 전담기구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봉우 기자

## '김정남 암살' 도안티호영, 석방무산

북한 김정남 암살 사건의 베트남 국적 용의자 도안 티 호영의 석방이 무산됐다.

14일 AP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검찰은 이날 슬랑오르 소재 샤 알람 고등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총장 지시로 호영에 대한 공소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정에 출석한 이스칸다르 아마드 검사는 공소유지 결정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호영이 이 사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사형제 폐지를 철회했다.

호영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호영 측 하삼 테 포 테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 뒤 '검찰이 호영을 불공평하게 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테 변호사는 또 "이는 우리 형사재판 시스템에 신뢰를 주지 못한다"며 "이는 명확한 차별이다. 검찰총장은 다른 쪽(호영)에 비해 한 쪽(시티 아 이사)에 특혜를 줬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시티 석방 이후 호영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증언할 상황이 아니라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판사는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일로 재판을 연기했지만, 더 이상 연기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이날 재판에 출석한 호영은 판사에게 긴장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재판이 끝난 뒤엔 피곤한 표정으로 베트남 대사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결백을 호소하며 흐느끼기도 했다.

호영은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를 이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복형인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 용의자인 시티와 함께 체포 기소됐다.

## 베네수엘라서 화학물질 저장탱크 폭발

베네수엘라의 북동부의 안소아예기 주의 국영석유회사(PDWSA)소유 시설에서 13일(현지시간) 시너가 가득찬 탱크 두 개가 폭발했다.

현지 언론들은 아직 사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간 울티마스 노티시아스지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폭발이 산디에고 데 카브루타카에 소재한 국영석유회사의 페트로 산 펠릭스 시설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사고가 난 페트로 산 펠릭스는 이 지역의 740헥타르를 차지하고 있는 광대한 호세 안토니오 안소아예기 산업단지에서 자리잡고 있다.

신문은 "석유회사 직원들이 폭발사고를 신고했지만, 사상자 발생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현지에는 소방구조대가 급파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 美 뉴멕시코주 토네이도 강타 피해 속출

미국 남부 뉴멕시코 주에서 12일 저녁(현지시간) 강력한 토네이도가 발생, 건물 옥상과 지붕들이 날아가고 텍스터 시외의 작은 마을 한 곳은 아예 폐허만 남기고 사라졌다고 당국이 발표했다. 집 10여채가 날아갔으며, 확인된 부상자는 2명이다.

현지 재난 당국은 13일 현재 아직도 곳곳에서 강력한 돌풍이 계속되고 있어서 피해 지역에 대한 조사와 청소는 시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있다.

텍스터 부근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는 빠른 속도로 29km 떨어진 로스웰 남쪽으로 굴러가 큰 피해를 냈으며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러나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상자는 없다고 경찰은 말했다.

현지 보안관 사무실의 마이크 헤링턴 보안관은 이번 토네이도가 약 5000명의 인구를 가진 이 작은 마을 한쪽 거리의 주택 10채를 "쓸어버렸다"면서 이 때문에 인근 목장의 착유장에 있던 150여마리의 암소도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다.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텍스터 부근 주민 1000명의 로건 마을 사막지대에서는 강풍으로 열차가 뒤집히며 탈선하기도 했다.

이 지역에는 아직도 시속 60~70마일(97~113km)의 강풍이 계속되며 토네이도의 잔재와 각종 폐기물을 쓸어들리고 있어서, 이 일대로 통하는 모든 도로가 폐쇄되었다.

각급 학교도 이번 주말까지 휴교에 들어갔다.

헤링턴 경찰관은 전화 인터뷰에서 "토네이도 잔해들이 마치 수류탄과 판처럼 원을 그리며 날아다니고 있다. 이전 전혀 안전에 도움이 안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건강검진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